興德寺字로 간행된《慈悲道場懺法集解》

南 權 熙*

1. 머리말

이 연구는《直指》를 찍었던 興德寺字와 같은 활자로 간행했던 것을 다시 飜刻한《慈悲道場懺法集解》라는 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술을 살펴보았다.

특히 直指로 대표되는 한국 금속활자 인쇄술의 이론적 역사와 더불어 실증적인 자료 제시는 이 분야 연구의 큰 진전을 이루게 하였으며 흥덕사지의 발굴 및《慈悲道場懺法集解》의 발견 역시 세계적인 연구의 틀을 갖추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지금까지 관련학계에서 이루어진《慈悲道場懺法集解》[1]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87년 이 자료가 처음 필자에 의하여《直指》와 같은 흥덕사자로 찍은 책의 번각본으로 소개된 이후 필자와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서지학과 불교학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먼저 필자가 다루었던 영역으로는,

1) 興德寺字로 찍은《集解》의 覆刻本에 관한 고찰

2) 논문제목은 1)과 같으나 1991년 새로 발견된 序文이 있는 자료가 다루어짐

3) 흥덕사자로 찍은 《集解》의 撰者와 간행에 관한 고찰

4)《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중 고려활자본을 다루면서 언급됨

등이 있다.

또 한국불교사상사 중 유식사상을 다루면서 이 책을 언급한 이만교수의 "彌授의 唯識思想 : 祖丘의《자비도량참법집해》를 중심으로(2000)"한 저술이 있다. 찬자인 祖丘와 고려말 塋原寺의 소속변화를 언급한 한기문[2]의 연구도 있다. 한편 이 자료의 기본 체계라 할 수 있는《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의 본문을 번역하고 그 본문에 대응하는 집해의 부분을 번역하고 주석으로 풀이한 성재헌이 번역한《慈悲道場懺法集解(2011)》가 있다. 이 책은 집해의 해당부분을 본문과 대조할 수 있게 제시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하께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기본 서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다른 접근으로 황선주 교수는《직지의 세계》를 통하여 흥덕사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集解》의 글자를 대소자로 나누어 분석하여 흥덕사자의 큰 자는 글자가 모두 2,614자로 1,053개 늘어났고 활자는 2,733개로 늘었으며 작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南權熙, 주소 :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421호, 전화: 053)950-5241, FAX: 053)950-5235, E-mail : khnam@knu.ac.kr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이하《集解》로 약칭함

2) 한기문, "高麗時期 密陽 瑩原寺의 所屬變化와 그 배경," 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大邱: 韓國中世史學會, 2001), pp.691-708.

은 자는 글자가 447개로 235개가 늘었으며 활자는 630개가 늘어났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慈悲道場懺法集解》의 연구 성과들을 돌이켜보고 그간의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기본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2. 한국 전통시대의 기록 매체 발달

2.1 매체의 재료

세계 문화사에 있어서 기록의 발달은 문자나 기호가 생기기 전부터 그림 형태로 출발하여 바위나 짐승의 뼈, 나뭇잎 등에 인류의 생각과 감정을 표시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등 인류 문화의 발달에 있어서 문자의 출현은 커뮤니케이션의 획기적인 전환은 물론 다음 세대로의 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통시적인 매개 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자문화권인 동북아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며 한반도에서도 문자이전의 그림, 부호 등이 岩刻畵와 같은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여러 방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漢字가 전래되면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거나 기념을 위한 비석을 세우고 고구려 고분에서와 같이 벽화에 글씨나 글을 쓰는 그림에서 당시의 여건을 짐작할 수 있다.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기록할 내용과 수단이 되는 문자와 더불어 매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즉 자연적인 암석이나 甲骨, 나무 외에도 원재료를 가공하여 만들어 낸 비단이나 종이가 필수적이며 여기에 書寫道具로써 붓, 칼, 먹이 사용되었다. 종이에 관한한 고구려때 담징이 일본으로 製紙術을 전파한 것과 삼국에 각기 고유의 역사책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 종이와 책의 존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편 근자에는 백제와 신라의 영역권에서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로 많은 木簡이 출토되어 당시의 문자 생활과 커뮤니케이션 및 통치 체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보다 앞서는 기원전 1세기 무렵 원삼국시대로 추정되는 茶戶里 고분에서는 5자루의 붓과 문자 삭제용 削刀가 발굴되어 당시 한사군과의 교역에 사용되었던 도량형과 칠기와 더불어 漢字가 주변국과의 교섭과 교역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의 평양에서 발견된 貞栢洞 발굴의 낙랑군의 戶口와 낙랑구역에서《論語》竹簡의 발견은 이미 이 지역에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 보편화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문자의 사용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구려 벽화고분의 墨書, 銘文 瓦當, 碑文, 石刻文 등 4세기부터의 실물 자료와 더불어 기록상 불교의 전래와 太學과 扃堂의 설립을 통하여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다.

최근 발견된 고대의 기록자료중 그 수량이 많고 중요한 것은 木簡으로 지역적으로도 백제(二聖山城, 宮南池, 陵山里, 伏巖里)와 신라(雁鴨池, 城山山城)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계속되고 있다. 주제로 볼 때 대부분은 관문서나 付札 목간이 많고 詩歌가 적힌 것과 戶口와 관련된 것이 있고 특히《論語》의 목간이 仁川 桂陽山城과 金海 鳳凰臺에서 발견되었다. 형태적으로는 題籤軸用 목간 4매와 재사용을 위해 깎아낸 목간의 껍질도 발굴되었으며 論語와 일부 문서 목간은 4면에 기록되어 일반적인 평면 목간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종이와 더불어 사용되었을 것이나 종이에 기록된 자료들은 보존의 문제로 주로 8세기 전반의 經典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후 고려

시대를 거치는 동안 종이에 쓰거나 목판에 새겨 찍은 간행물들이 20세기 초반까지 외형적인 형태를 시기적으로 달리하면서 계속 사용되었다.

2.2 수록의 내용과 방법

현재 전해지고 있는 자료로 볼 때 金石文의 경우는 기념을 위한 것이 많고 木簡들의 주제는 주로 통치와 생활에 관련된 문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종이매체에는 불경과 같은 종교적인 것, 생활 관련, 문서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어졌다. 즉 신앙을 위한 것과 감성적인 것, 기억과 이성적인 활동을 위한 것으로 시대별로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한편 역사적으로 기록이 매체에 수록된 방법으로 볼 때 石刻, 筆寫, 板刻, 活版의 순서로 발달되어 왔고 낱장의 單枚物에서 점차 수량이 많아진 까닭에 제본과 장정이라는 방법으로 編綴이 발달되었다. 그 형태가 卷子本, 折帖本, 蝴蝶裝本, 包背裝本, 線裝本, 洋裝本으로 진화되고 생산의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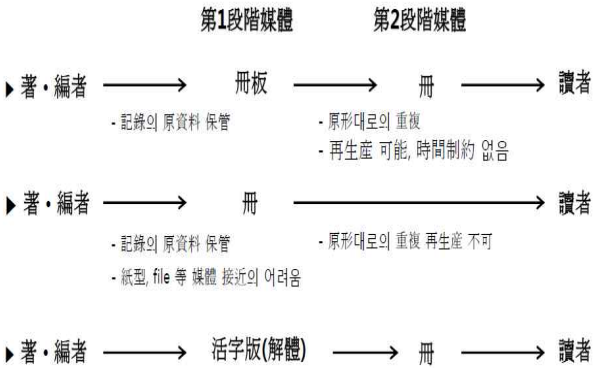
특히 인쇄본의 경우 다량생산과 배포, 신속성의 목적을 가진 방법으로 초기에는 佛塔에 供養物로서 넣기 시작하여 종교와 교육의 기본 자료 생산과 기념비적 거질의 대장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그 중 목판본은 다량 생산과 보존성의 장점이 있고 활자본은 신속성과 다양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서로 보완적으로 발달하였다. 또 이 두 가지 복제생산의 수단은 기술과 인력의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국가와 개인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전통시대의 출판을 일반적으로 지역과 간행주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분석되며 그 특징을 圖式化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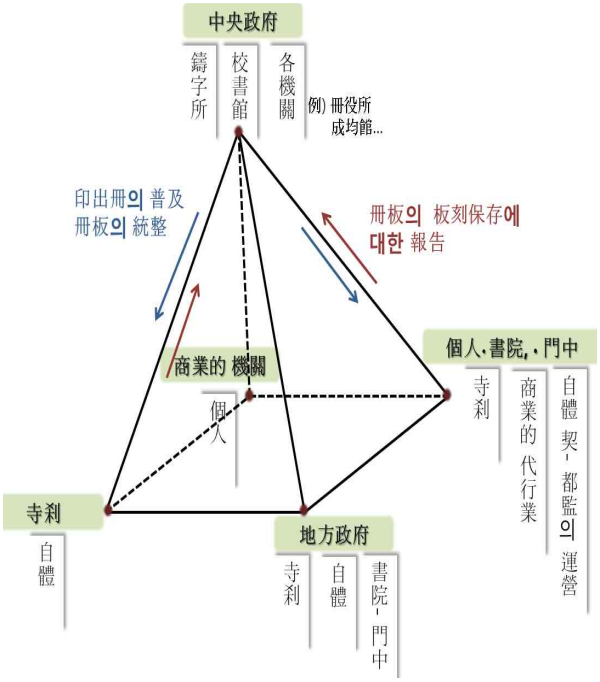
전통시대 출판 행태 요소별 분석

	中 央	地 方	備 考
목적	통치의 방편 교화의 목적	대중적 요구 충족 정체성 확인	지식의 보편화에 기여 정서적, 감성적 내면세계 표출 (방각본)
내용	표준화, 정품화, 일반화	특수화, 지역화, 개별화	
수단	보급성 비영리	학문적 정리 사회적 인정 영리, 상업 출판 의존	
범위	집중, 집약 간행	분산 간행(관찬서)	
주체	관주도형	학맥, 문중주도형(서원, 향교)	
간행기관	출판관련 기관(교서관, 주자소, 도감)	감영, 서원, 재사, 사찰	족보, 문집 (목활자 간행)
		상업출판	

위의 표에서 구분된 출판의 행태를 전통시대의 매체별로 그 유통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의 그림과 같은 구조 아래 각 부분에서는 다시 간행의 목적과 시급성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集中型과 分散型이 임의로 채택되었다.



<기록물의 생산·관리와 刊本의 보급도>

中央과 地方의 目的과 行態

中央	集中型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편찬물과 지역보급 목적의 표준본의 간행
	分散型	지역 대표의 감영별 판각, 인출 인력과 물자를 바탕으로 출판을 통하여 효율적 보급을 도모함
地方	集中型	비교적 작은 분량의 내용으로 신속 배포가 요구되는 것, 지방관의 개인적 요구에 부응
	分散型	비교적 많은 분량의 내용으로 판각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관련 업무의 효율을 높일 목적

특별한 경우, 綸音과 같이 국가나 왕의 시책을 빠르고 널리 알리고자 할 때는 중앙에서 신속히 활자로 간행하여 바로 지방관청에 배포하면 지방의 행정조직에서는 상시로 준비되어 있는 각수를 동원하여 2~3일내로 급히 새겨내고 통치범위의 郡縣에 적게는 수십부에서 2천부 가까이 印出하여 배포한 예도 있다.

王命
↓
中央 → 活字 (신속성, 대표성)
綸音 木板 (보급성) 諺解 (보편성)
地方 → (신속성) → 監營內 상주하는 각수에 의한 적은 판수의 집중 판각
(다량성) → 넓은 지역에 배포

그러나 문중이나 개인의 集中型으로 그 특징은 ① 신속성이 떨어지고, ② 망라적 배포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③ 개인의 학문적 성취에 따른 결과물로 필요, ④ 개인·문중의 선양 목적(문집, 世稿, 蓮榜集) ⑤ 문중의 결속, 유대감 형성(족보) 등이다.

이러한 목판과 활자라는 출판방법의 차이는 이미 중국에서 발전되어온 방법이었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활자를 중심으로 출판문화가 발전되었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서책의 수요가 중국처럼 많지 않았음

(2) 중국에서 간행된 선진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 책을 만들어 신속히 익히고자 함

(3) 활자는 한번 만들면 책의 생산 경비가 목판에 비해 상대적 저렴함

(4) 당시의 활자 인쇄는 기술상 한 번에 수십부 밖에는 간행할 수 없었음

이와 같이 우리의 실정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출판방식은 활자본이었던 까닭에 고려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활자가 중앙에서부터 지방,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져 서책과 문서를 찍는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筆寫의 방법이나 목판의 방법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활자에 의한 출판이 상대적으로 융성하였다는 것이다.

3.《慈悲道場懺法集解》의 刊行과 書誌的 分析

3.1 간행 배경과 의의

高麗後期의 불교에 있어서 그 특징적인 것을 든다면 무신집권과 몽고의 침략을 거치면서 禪宗과 天台宗이 주류를 형성하고 지방 불교적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중과 결합될 結社運動, 神異的 요소의 부활, 律宗・神印宗・小乘宗・海東宗 등 신라말에 약간의 세력이 있다가 기록에서 자취를 감췄던 群小宗派의 부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慈悲道場懺法》의 간행과 유통이나 慈悲懺道場을 여는 것은 밀교적인 경향을 띠는 佛事로서 밀교의 護摩法 중 敬愛法에 해당하며 이는 모든 사람이 歡喜心을 발하여 天龍八部, 藥叉女 등 귀신을 섭복시키고 모든 적을 回心시켜 歡喜心을 발하게 하며 諸佛菩薩이 護念加持케 하는 법이다.

이와 같은 밀교적인 법회로서 消災道場, 摩利支天道場, 文豆婁道場, 灌頂道場, 大日王道場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설치되었지만 그 중 慈悲懺道場은 睿宗 6年(1106)에 왕이 친히 文德殿에서 慈悲懺道場을 설치한 기록도 있으므로 비록 그 횟수는 많지 않으나 일찍부터 密敎的 의식은 거행되고 있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義天 大覺國師의《新編諸宗敎藏總錄》의 2권 권말 부분에 十誦律 아래 '《慈悲懺法》 十卷 梁武帝述'이라 수록되어 敎藏의 간행에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으로 당시의 이 책에 대한 인식을 짐작할 수가 있다. 또 같은 밀교 계통의 내용으로 大德 2年(1298) 居祖社의 元旦에 의하여 이루어진《現行西方經》에도 10여차례《慈悲懺法》을 인용하고 있는 바 이는 여말 불교의 밀교적 성격과 그 맥이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당시에는《慈悲道場懺法》이 널리 유통되고 보편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따른 다양한 판본의 유통이 集解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13세기 이후 萬德山 白蓮社를 중심으로 한 천태종의 중흥운동에서 了世 등이 늘 53불에 대한 예참을 행하는 참회수행이라든가 천인에게 계승된 천태, 법화참법 등 법화삼매에 이르게 하는 실천방법으로 참회수행을 강조하여 참회문과 참법이 발달되던 불교사상의 시대적 흐름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결국《慈悲道場懺法》이란 책의 내용은 이미 그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전하여져 쓰이다가 14세기에 이르러 이의 바른 사용과 해석을 위해 여러 사람의 몇차례 걸친 연구과정을 통하여《集解》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懺法이란 경전을 읽어 조장을 참회하는 법회로 4가지가 있다. 먼저, 법화참법은《法華經》으로 참회하는 것이며 陳나라 天嘉 4年(563)에 文帝가 太極殿에서 無庶大會를 베풀면서 행한 참법이다. 天台 智顗가 그 법을 기록하여 법화삼매법을 짓고 그것을 베껴 인출한 것이 법화참법이다.[3] 둘째, 彌陀懺法은《阿彌陀經》으로 참회하는 것으로 아미타불을 본존으로 하고 十方三世의 부처를 청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온갖 악업과 죄업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이다.[4] 셋째, 觀音懺法은《觀音經》으로써 圓通懺法 관세음보살의 名號를 唱하고 참회, 공양하는 것이며 죽은 이를 위하여 죄업을 참회하고 명복을 비는 법식이다.[5] 네째, 吉祥懺法으로 金光明懺法의 별칭이며 吉祥天을 본존으로 삼고 죄악을 참회하며 福德을 기원하는 수법이다. 이 중에서 觀音, 阿彌陀, 法華懺法은 滅罪生善, 後生菩提를 위하여 수행하고 吉

3) 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編, 韓國佛敎大辭典 (서울: 寶蓮閣, 1982), p.554.
4) 上揭書, p.312
5) 上揭書, p.258

祥懺法은 鎭護國家, 息災延命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集解》가 유행된 사상적 배경은 고려말의 불교사상이 토착적인 신비사조의 흐름과 민중불교, 지방중심 불교로서의 경향에 밀교 의식적인 필요성과 彌授를 정점으로 하는 瑜伽業의 懺悔思想과의 혼합으로 경전의 呪誦, 禮懺과 懺悔를 통하여 복을 기원하고 병을 낫게하며 장수를 바라는 등 현세이익을 기원하는 일반 민중의 요구에 있었다. 편찬시기에 있어서 이 책을《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6]과 관련지어 간행시기를 추정하면 祖丘의 승직과 승계에 의하여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한 自超를 비롯한 당시의 대표적 고승들과 비교할 때, 역시 1377년을 전후한 시기로 판단되지만 정확한 것은 권말의 缺張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3.2 撰者 및 형태적인 특징

1) 撰者

《集解》는《直指》와 더불어 興德寺字로 찍은 것으로 비록 발견본은 활자본이 아닌 飜刻本이지만 편자가 확인되고 서문이 있어서 간행의 경위는 알 수 있으며, 형태적으로는《直指》와 같은 鑄字本으로서 두 책의 공통점이 여러 곳에서 검증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底本이 되는 활자본의 출현이 기대되는 책이다. 편찬 목적은《慈悲道場懺法》의 해석과 문장의 연결, 字의 音, 文義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학자가 풀이한 것을 취사선택하여 배우는 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단어와 문장을 풀이하는 것이었다.

이 책의 撰者는 祖丘이며 그는 여말선초에 활약한 천태종 승려로 조선 太祖때에는 王師인 自超와 더불어 國師로 활약한 적도 있다. 책의 상권 卷首題에 나타난 저자사항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禪敎統攝 前坐原寺 兼佛恩寺住持 敬奉遺敎 修 / 學玄義 國一都大禪師 空菴和尙 祖丘 撰集幷序 /

이처럼 撰者와 서문을 쓴 인물로 祖丘를 밝히고 있다. 祖丘는 고려말의 고승으로 조선 건국과정과 그 이후의 행적만 남아있는 神照[7], 行乎[8]등과 함께 고려말부터 조선초기에 걸쳐 천태종의 계승자로서 활동을 하였으나 행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성리학적 의식기반이 약했던 太祖 李成桂에 의하여 王師인 自超와 함께 國師로서 활동하였다.《太祖王朝實錄》에 의하면 太祖 3年(1394) 9月 8日 國師로 봉해지고[9]다음 달 10月 21日에 책봉의식을 시행하였으며[10]다음 해(1395) 11月에 病死하였다[11]는 기록이 보일 뿐으로 출생 및 다른 행적이 麗末의 다른 國師들에 비하여 疏漏하다.

이 밖에 麗末의 시대배경에 있어서 몽고와 결탁한 왕실세력의 부패와 함께 불교계의 혼란과 더불어 忠宣王, 忠肅王에 의한 僧政 變化로 王師, 國師의 대우도 달라져 彌授의 懺悔府, 普愚의 圓融府와 같이 국사에게 독립된 官府를 설치하고 이를 전감케하고 王師나 國師의 출생지를 승격시키거나 부모를 追封하였다.[12] 이러한 현상이 조선에 와서도 계속되어 祖丘도 그의 출생지인 潭陽縣이 郡으로 승격[13]되기도 하였다.

---

6) 이하《直指》로 약칭함

7) 許興植, 高麗佛敎史硏究 (서울: 一潮閣, 1986), p.282.

8) 韓基斗, "麗末鮮初의 天台・法華思想," 佛敎文化硏究所 編, 韓國天台思想硏究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3), pp.366-368.

9)《太祖實錄》 卷6 太祖 3年 9月 乙巳 《...以天台宗僧祖丘爲國師...》

10)《太祖實錄》 卷6 太祖 3年 10月 丁亥 《...飯僧百八于內殿行國師封崇禮仍賜鞍馬...》

11)《太祖實錄》 卷8 太祖 4年 11月 甲戌 《...國師祖丘病死爲之停朝...》

12) 許興植, 高麗佛敎史 硏究, p.281.

13)《世宗實錄》 卷151 地理志 全羅道 潭陽 《...本祖四年乙亥

또 祖丘는 고려후기의 萬德山 白蓮社와 관련되어 그 중《萬德寺志》에 나타난 圓妙, 精明, 圓旵, 眞靜, 圓照, 圓慧, 無畏, 牧菴無畏國師로 이어지는 8명의 국사가 대표되지만 여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학자들간 異說이 있다. 그 중 특히 韓基斗는 祖丘와 관련하여 混其가 여덟 번째 國師로 책봉되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조선초에 國師로 책봉된 祖丘를 설정하였다.[14]

한편, 祖丘의 기록이 전하지 않는 이유로서 高橋亨은 太祖가 禪宗으로 國師 自超를 봉하였으나 후대 敎宗이 쇠망함에 따라 祖丘의 行蹟도 찾아보기 힘들다[15]고 하였다. 그러나 祖丘에 관한한 주로 활동을 한 高麗의 기록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결론은 주저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高麗, 朝鮮을 걸친 祖丘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서 행적을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集解》卷首의 기록 중 찬자사항에 나타난대로 책을 저술할 당시 祖丘의 僧錄司의 職責, 僧職과 僧階는 '禪敎統攝 前瑩原寺兼佛恩寺住持 敬奉遺敎修學玄義 國一都大禪師 空菴和尙'으로 조구가 높은 신분을 가진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2) 형태적 특징

이 책의 판본은 현존본들에 의하면 紙質이 藁精紙에 일부 楮紙가 섞인 판본과 얇은 저지로 竹紙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종이에 인출된 飜刻木板本들이다. 다만 모두 마지막 부분이 落張되어 전모를 알기 어렵다. 지질, 인출된 상태 등의 여러 형태적인 조건으로 보아 이 판본의 인출은 고려말에서 조선초기로 여겨진다.

《集解》는 활자본을 飜刻한 목판본이며, 그 저본은《直指》를 찍었던 興德寺의 같은 금속활자로 인출된 것이다. 즉 형태적인 면에서《直指》와 版式을 비교하면 거의 같은 형식으로 黑口나 魚尾가 없으며 行數도 같고 글자의 크기도 같으나 다만 字數는 평균 20-21자로《直指》보다 많은 편이며 그 出入도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各 行列上의 排字가 고르지 않고 비스듬하게 식자된 것이 많고 동일한 字樣의 글자는《直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면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서가 飜刻本인 까닭에 더욱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본문에서의 小字 사용은《直指》보다 적으며, 중복자의 사용을 부호화시켜 字數를 상대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조판기술의 미숙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底本은《直指》와 같은 시기 내지는 먼저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간행 시기 추정

이 책의 번각 저본에 쓰인 활자가《直指》의 것과 같으므로 1377년을 전후로 한 어느 때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상의 자료로 책 전반에 걸쳐서 인용되고 있는 90여종의 인용문헌을 볼 때《四敎儀集解》가 인용되는 바 이《天台四敎儀集解》는 黑田亮의《朝鮮舊書考》에서 1301-1350년 사이에 간행된 것이라 추정[16]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直指》보다 더 빨리 찍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1351-1376의 사이 중 후반부에 간행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卷末의 跋이나 識文 등이 缺張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단정지을 수가 없다.

以國師祖丘之母鄕 陞爲知郡事...》

14) 許興植, 高麗佛敎史 硏究, p.281.

15) 高橋亨, 李朝佛敎 (東京: 國書刊行會, 1973), pp.50-51.

16) 黑田亮, 朝鮮舊書考 (東京: 岩波書店, 1986), p.30.

3.3 수록 내용

1) 내용

《慈悲道場懺法》은 梁武帝의 둘째 아들인 南齊 景陵王이 동방 普光世界의 天王如來께서 淨住淨行法門을 설하는 꿈을 꾸고서《淨住子》21편 30권을 찬집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양 무제가 그 참문의《六根門》에 의거해 당시의 대덕인 眞觀 등으로 하여금 총 10권으로 확충 완비한 것이 현행《慈悲道場懺法》이다. 이후 '梁皇懺'으로도 불린 이 참법이 세간에 널리 유행하여 다양한 판본이 전래되었는데, 이것들을 송나라 때 淸凉山 사문 廣鈞이 7년에 걸쳐 대조하고 교정하여 詳校正本을 간행하였다.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첫머리에 康戩이 쓴《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序》가 있고,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각권의 말미마다 廣鈞이 초록한《音義》가 수록되어 있으며, 끝머리에 김수온의 跋文이 첨부되어 있다. 空菴和尙 조구가 이 상교정본의 서문과 본문, 그리고 음의를 각각 해설하고《集解序》를 첨부한 것이《集解》이다.

조구가《集解序》에서 "아둔한 자들이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학자들의 해석 가운데서 광범위한 해설은 삭제하고 요점만 정리하며, 어려운 해설은 삭제하고 쉬운 설명을 선택해 나의 해석을 덧붙여 集解라고 제목을 붙였다."라고 밝혔듯이 집해의 내용은 溫陵 사문 辨眞의 찬주, 淸凉山 광균의 私鈔 3권, 烏婆塞迦 覺明의 주석, 고려 慈恩宗 國一彌授 대사의 述解, 東林 선사의 略解등 5종의 기존 주석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요약 정리한 것이 주를 이룬다. 또한 그 형식에 있어서 간간이 대화체가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慈悲道場懺法》에 대한 강해가 있었고 그 결과물로《集解》가 편찬된 것으로 짐작된다.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성에 대해 조구는 "10축의 전체적 구성을 살펴보면 세 단락의 뜻이 있다"는 변진의 해석을 소개하여 자비도량참법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 갖은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다른 방식으로 설한《法華經》의 三周說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조구는 기존 주석서를 바탕으로 字句의 해석과 音義를 상세히 밝힘은 물론이고, 인용된 문구의 전거를 밝히고 수많은 經論에 의거해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

이러한 구성에 따른 세부 항목들을 차례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 : 앞의 두 권은 참회와 행원을 바로 밝힌 것으로서 문장과 그 뜻이 오히려 간략하므로 상근기를 위한 것이다.

제1권 : 1. 삼보에 귀의함 / 2. 의심을 끊음 / 3. 참회 / 자비참법석문(釋文)
제2권 : 4. 보리심을 일으킴 / 5. 원을 세움 / 6. 회향하는 마음을 일으킴

제2단 : 다음 네 권은 과보를 드러내고 원결을 푸는 것을 아울러 밝힌 것으로서 조금 관대하여 중근기를 위한 것이다.

제3권 : 1. 과보를 드러냄
제4권 : 1. 과보를 드러냄 / 2. 지옥을 벗어남
제5권 : 3. 맺힌 원한을 풂
제6권 : 4. 맺힌 원한을 풂 / 5. 발원

제3단 : 뒤의 네 권은 自慶과 禮佛과 行門을 총괄해 보인 것으로서 자세하여 하근기를 위한 것이다. 하근기는 장애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널리 참회해야 한다.

제7권
1. 스스로 축하함
삼보를 생각하도록 경책함 / 참주가 대중에게

사죄함 / 다 함께 큰 원을 일으킴
2. 육도를 위한 예불
하늘 세계를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모든 신선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범왕 등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제8권
아수라 세계의 일체 선신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용왕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마왕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인간 세계를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국왕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모든 왕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부모님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과거 부모님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스승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시방의 비구와 비구니를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시방의 과거 비구와 비구니를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제9권
아비지옥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회하지옥과 철환지옥 등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음동지옥과 탄갱지옥 등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도병지옥과 동부지옥 등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화성지옥과 도산지옥 등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아귀 세계를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축생 세계를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육도를 위한 발원 /
무상함을 생각하도록 경책함 /
노고를 마다 않고 일한 이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함 /
3. 회향
회향을 일으킴 / 회향법을 설함
제10권
보살의 회향법
4. 발원
안근(眼根)의 원을 일으킴 / 이근(耳根)의 원을 일으킴 /
비근(鼻根)의 원을 일으킴 / 설근(舌根)의 원을 일으킴 /
신근(身根)의 원을 일으킴 / 의근(意根)의 원을 일으킴 /
입의 원을 일으킴 / 수행해야 할 모든 법문
5. 촉루
찬불주원(讚佛呪願)

2) 序의 기록과 편찬배경

이 책의 간행 배경에 대한 祖丘의 설명 부분에 의하면, 책이 세상에 나온 이래 그 내용과 문자가 읽고 해득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중국에서는 溫陵 傳敎沙門 辨眞師가 註疏를 찬하여 통하게 하였으며 淸凉山 廣鈞師가 詳校한 후에 私抄 3권을 저술하였고 烏婆塞迦 汝南 覺明公이 주를 달았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慈恩宗師 國一彌授大師[17]가 述解하고 선가의 鐵匠 즉 교리에 밝은 東林師가 略解하였으나 이 글들은 세상에 널리 전해지지 못하였다는 기록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련된 저술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辨眞師의 저술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廣鈞師의 詳校本은 후대의 주류를 이루는《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이나 私抄 3권은 역시 전해지지 않고 있다. 또 覺明公의 注本은 저자의 선행연구[18]에서 '明公云'과 관련하여 集解를 편찬할 때에 이 책을 옆에 두고 다른 참고문헌과 대조하면서 편찬하였을 것으로 祖丘의 序에 의하여 그러한 추정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中國의 저술은 일부 확인되지만 高

17) 이만, 한국유식사상사 (서울: 藏經閣, 2000), pp.398-401.
18) 南權熙, "興德寺字로 찍은《慈悲道場懺法集解》의 覆刻本에 관한 考察", 文獻情報學報, 제4집(2000), pp.179-234.

麗 彌授大師의 것과 東林寺의 저술은 전혀 알 길이 없고 판본 형식은 물론 그 존재에 대한 기록마저도 유일하게 이 자료에 의해서만 확인 될 뿐이다.

특히 이 책의 序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集解에 관련하여《慈悲道場懺法》이 간행, 유포된 이후 여러 사람이 이를 쉽게 풀이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을 기울인 역사적인 배경과 集解를 하게 된 내력에 대하여 祖丘 자신이 직접 序를 쓰고 있다. 다만 '序'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바로 연결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卷首題가 있기 전에 序가 쓰여지는 것이 상례이나 이 책은 卷首題와 저자 표시가 있고 마치 본문의 처음 시작과 같은 위치에 序를 편차한 점이 특이하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이 懺法이 성행하고 있으나 뜻과 법을 풀이할 사람이 적다.

② 몇 가지 전해지는 것은 문장의 연결과 글자의 高低淸濁이 분명하지 못하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慈恩宗師 國一彌授大師가 述解하고 선가의 哲匠 즉 교리에 밝은 東林師가 略解하였으나 이 글들은 세상에 널리 전해지지 못했다.

④ 따라서 얻어 보지 못한 자가 많으며 또 보았다 하더라도 그 文義가 깊고 넓어서 배우는 자들이 그 근원과 갈래를 알지 못하고 그 끝 가까이 연구하지 못하여 이에 종종 사사롭게 쓴 것이 모두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러 전해지지 못하였다.

⑤ 또 사람마다 그 배우는 根氣가 다르다.

⑥ 이에 祖丘는 禪敎에서 공부한대로 풀이하였으나 역시 어려운 내용이 되었다.

⑦ 따라서 어리석은 자들이 쉽게 배우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학자들이 해설한 것 중에서 넓게 추리고 간략하게 정리하여 어려움을 없애고 쉽게 하였다.

⑧ 주석과 더불어 제목을 '集解'라 하였다.

⑨ 원컨대 배우는 사람들은 文에 의거하여 뜻을 취함에 신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서 祖丘가 이 책을 찬하게 된 이유는《慈悲道場懺法》의 바른 전달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文과 字의 해석을 여러 학자들의 풀이에서 취사선택하여 편찬하는데 있었으며 그러한 방법에 따라 제목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慈悲道場懺法》의 편찬	중국의 2차 자료	한국의 2차 자료
梁 武帝의 撰修 高僧들의 撮錄 元代의 對校, 審訂(詳校正本)	辨眞師...撰注疏通 廣鈞師...詳校, 私抄3권 覺明...注	彌授大師...述解 東林師...略解 祖丘...集解

3) 集解의 형식

이 책은《慈悲道場懺法》에 나오는 어려운 글자나 어구, 내용에 대하여 音釋이나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에 관한 諸學者의 견해를 수록하여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문장의 일관된 흐름이나 연결성을 배제하고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集解의 형식으로 된 자료로서는 조선시대에 乙亥字로 간행된《天台四敎儀集解》와 그 밖에 고려시대의 자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의천이 편찬한《新編諸宗敎藏總錄》에 수록되어 있다.

有名 述 華嚴經集解 5권 / 道液 述 維摩經關中集解 4권

法圓 述 金剛般若經集解 1권 / 智明 述 般若心經集解 4권
惠素 述 成唯識論集解 3권 / 神雄 述 法華論集解抄 2권
從義 述 四敎儀集解 3권 / 無名氏 四敎儀地位集解 1권

이와 같이 여러 경전에서 集解의 형식이 등장하는 것은 불경의 난해한 낱말이나 구절을 쉽게 풀이하여 내용의 이해와 전달에 도움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音이나 義를 추가하여 설명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3.4 彌授의 唯識思想[19]

이상과 같이 조구는《集解》의 내용 가운데 미수의 註釋 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수는 고려 후기 忠宣, 忠肅王 때 사회에 불교의 교의를 널리 진작시킨 법상종의 승려였다. 이러한 미수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法住寺에 있는 그의 현존 탑비를 통해 고찰되었는데 근래에 天台宗의 승려였던 祖丘가 저술한《集解》가 발견되어 미수의 註釋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것으로 미수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미수(1240-1327)가 활동하던 고려 후기의 불교계에서 천태종과 조계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파들이 당시 국력이나 왕권 등의 쇠락과 함께 몰락의 위기에 있었다. 이와 같은 교학의 침체기에 법상종 출신인 그는 惠永(1228-294), 海員(1262-1340) 등과 함께 불교계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승려였다.

미수는 일선군(지금의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속성은 김씨이며 본래 이름은 子安이지만 후에 꿈을 꾸고 감응된 바가 있어 개명하여 미수라고 하며 彌勒佛을 흠모하여 그 이름의 일부를 차용하여 쓴 것이라고도 전해진다. 조구의《集解》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미수가 이르기를, 미륵불이란 梵語로 彌帝曳隸野(Maitreya)라고 하는데, 이를 慈氏라고 번역한다. 꿈속의 감응으로 인하여 참회했기 때문에《자비도량참법집해》의 題字에서와 같이 彌勒(慈)을 앞에 두는 것이다.
>
>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上生會에서 입멸하고자 하실 때 아직도 제도하지 못한 말법 중생들을 모두 慈氏如來에게 부촉했기 때문에, 미륵은 이제 敎授師가 되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고 선법을 수습한다...

이와 같이 미수는 법상종에서 주존불로 여기고 흠모하던 彌勒菩薩을 꿈속에서 알현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도 이 세상에서 미륵보살의 덕행을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彌勒에서 '彌'자를 취하고 敎授師에서 '授'자를 빌려와 이름을 彌授라고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즉 고려후기에 쇠퇴해가는 교학 풍토를 개선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는 미수는, 당시의 사회 풍조를 변혁시키려고 법상교학과 참회법을 널리 보급시키는데 노력하다 법랍 75세인 세수 88세 때(충숙왕 14년 : 1327)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반하였고 시호를 慈淨國尊이라고 했으며, 탑명을 普明이라고 하여 현재 법주사에 안치되어 있다.

미수가 활동하던 고려 말기의 불교계는 여러 가지 내외의 사정으로 혼란이 계속되어 교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 이익적인 것에 일반 대중들의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에게 참회하고 無量壽國에 태어나기를 발원하거나 미륵보살에게 참회하여 자비를 구하는 등의 信仰儀禮들이 성행하였다.

19) 이만, 한국유식사상사, pp.396-409.

당시의 이와 같은 불교계의 상황에서 법상 계통의 승려들도 교학은 물론 일반적인 종교의례에까지 영역을 넓혀 惠永은 白衣觀音에게 禮懺한《白衣解》를 지었고, 彌授는 미륵보살에게 참회한 《慈悲道場懺法》에 주석을 하여《述解》을 찬술하였다.

조구는《集解》에서 미수의《述解》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集解》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승들의 주석 내용보다는 중국인들의 것을 많이 援用하고 있다. 간혹 유식사상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元曉나 圓測, 太賢 등 우리나라 출신 법상가들의 주장은 언급하지 않고, 주로 圭峯 宗密(780-841)의《禪源諸全集》에 설해진 내용이나《慈悲道場懺法》에 대해 주석한 중국의 변진과 각명 등의 것을 인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려에서는 東林禪師와 미수의 언급만이 얼마간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조구는《慈悲道場懺法》중에 나오는 관련 사상을 언급할 때 이것에 대해 쓰여 있던 내용이나 익히 알고 있던 중국 여러 학자들의 것을 답습하고 있어서 賢首나 淸凉, 宗密, 慈恩 등 중국 사상가들의 설을 많이 인용하였다.

3.5 인용문헌 분석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중국과 한국의 여러 승려나 학자들의 견해나 주석이 포함되어 있고 찬자인 祖丘 역시 여러 견해나 더불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석에

1)《慈悲道場懺法集解》에서 나타나는 인용 인명별 횟수

	卷上				卷下							합계
	序	卷1	卷2	卷3	卷4	卷5	卷6	卷7	卷8	卷9	卷10	
覺明		39	15	13	21	8	10	19	6	5	20	156
辨眞	1	29	20	20	20	11	12	18	3	4	12	150
彌授 (懺海師)	3	28	19	22	12	7	6	9	1	4	17	128
東林	1	4	6	7	4	2	2	2		3	2	33
廣鈞	5	2	1									8
[窺]基(1)				1	1				1			3
古德(2)	1							1				2
淸凉	1							1				2
惠式		2										2
宗密	1											1
賢首		1										1
義淨			1									1
寂		1 (音義)										1
圭峯							1					1
永嘉								1				1
延壽								1				1
총 인용된 횟수	13	106	62	63	58	28	31	52	11	16	51	491

2)《慈悲道場懺法集解》에서 나타나는 권별 다인용 서명 순위

卷上					卷下					
序	卷1	卷2	卷3	卷4	卷5	卷6	卷7	卷8	卷9	卷10
楞嚴經(2)	楞嚴經(3)	法華經(3)	懺法音義(2)	楞嚴解(3)	古德 頌	古德 頌	行願品(3)	手鏡	俗律	法界次第(2)
漢書(2)	楞嚴解(3)	涅槃經(3)	楞嚴谷響鈔	觀佛三昧經	觀佛三昧經	百法論	古德 頌			俱舍婆娑論
大莊嚴論	華嚴經(3)	華嚴經(3)	般若經	寄歸傳	起信論	寶積經	金剛般若			起信論
爾雅	四教儀集解(2)	決定毗尼經	法界次第	起世因本經	楞嚴別解	四教儀	論			楞嚴經
四教儀集解	別行疏(2)	楞伽經	法華經	般若經	楞嚴長水疏	禪源集	楞嚴經			四教儀
釋典	手鏡(2)	楞嚴經	釋名	手鏡	楞嚴解	手鏡	萬善同歸集			禪源集
禪源諸全集	諸乘法數(2)	大智度論	說文	阿含經	楞嚴環解	十王果報別門	別行疏			涅槃經
說文	古人 頌	梵網經疏	手鏡	正法念處經	妙宗鈔釋	輪轉頌	福田經			維摩經
手鏡	廣韻	法界次第	爾雅	造像經	蘇秦結交吟	雜染頌	雜阿毗曇論			爾雅
瑜伽論	大宋高僧傳	釋論	祖庭事苑	地獄經	涅槃經	智論	請觀音消伏毒害陀羅尼經			智論
職林 諸后妃傳	大集念佛三昧經	須摩提經	智度論	懺音	圓覺鈔	玉篇	北史			
郗氏序	百法明門	勝鬘經	唐書		維摩經		周書			
行願別行疏鈔	梵網經	十王果報別門	玉篇		仁王經					
梁書	梵網疏	圓通懺			持世經					
玉篇	法界次第	諸佛要集經								
莊子	法苑珠林傳	祖庭集								
孝經	佛藏經	中觀論								
	薩多毗婆									
	疏									
	涅槃經									
	類編									
	藏經音義									
	淨住子									
	祖庭事苑									
	智度論									
	請觀世音經									
	華嚴經記									
	弘明集									
	德經									
	尙書									

대한 인용은 물론 평가도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용은 인용문이나 인용자의 표시와 함께 제시되는 바 경우에 따라 이름의 앞 한자를 생략하여 표기하기도 하였다. 또 문답식의 방법을 통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자기의 견해를 다른 견해에 덧붙여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대체로 앞부분(卷1-2)은 상근기에 대한 것으로 주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물론 인용부분에는 어려운 글자의 음과 뜻, 각 학자들의 주석과 풀이를 포함한 견해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인용 방법에는《慈悲道場懺法》에 대하여 직접적인 풀이와 언급이 있는 중국의 覺明, 辨眞師, 廣鈞의 내용과 고려 인물로서 彌授, 東林 등이 나타나지만 그 밖의《慈悲道場懺法》이 아닌 다른 문헌이나 자료에 수록된 10여명의 견해를 간접 인용하여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개별적인 인물의 언급 외에도 여기서는 역대의 경전이나 연구서를 인용하고 있는 바 80여종의 불교 관련저술과 9종의 역사서 및 기타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경전의 표기가 완전서명과 부분서명으로 자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祖丘가 이 경전의 풀이를 위하여 깊고 넓은 불교지식을 활용하여 이 책을 풀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4.《慈悲道場懺法集解》와《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과의 형태서지적 비교

4.1 版式

邊欄은 두 책 모두 四周가 單邊으로 되어 있고 또 固着된 점이 동일하다. 다만《集解》에서는 모두 6張(上卷 第13張, 第15張, 第25-28張)에서 版心部分과 본문이 분리되어 있으나《直指》에서는 대부분의 張에서 아랫부분은 연결되어 있고 윗부분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第32-38張의 7張은《集解》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半匡에 있어서 左右의 幅이 서로 비슷하여《直指》은 14.8cm이며《集解》는 14.6cm로 서로 行數가 같기 때문이며 상하 높이의 차이는 식자된 글자의 숫자가《集解》가 많은 데 연유한다.

界線의 경우《直指》에는 있으나《集解》에 없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으로 추정되어지는 바, 첫째, 底本에 界線이 없었다면 組版 技術의 미숙으로 界線을 넣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였거나 당시의 서책 판면에 대한 선호도가 대장경처럼 界線이 없는 것을 더 선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둘째, 底本에는 界線이 있었으나 飜刻시에 생략하였을 가능성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集解》가 字體에서 보는 것과 같이 底本을 충실하게 飜刻한 것이므로 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책 전체를 통하여 볼 때 界線이 없다고 하여 옆 행을 침범한 글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行數는 두 책이 같고 行間도 거의 같게 나타난다. 字數는 달라서 평균적으로《直指》이 비록 차이는 있으나 18字로 된 行이 많은데 비하여《集解》는 20字, 21字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字數가 다른 현상은《直指》보다《集解》가 더 不整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록 半匡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도 기술상의 측면에서 뒤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版面의 맨 아랫글자에서《直指》은 비교적 위 글자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고 또 크기도 같게 나타나지만《集解》는 번각본임을 감안하여도 이지러지거나 출입이 심하여 고르지 않은 면이 많다(上卷 第26張앞, 下卷 第32張뒤, 第35張뒤, 第

37앞, 第44張앞 등). 즉 이것 역시 組版技術이 《直指》 보다는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 또한 두 책 모두 版心에 黑口와 魚尾가 전혀 없는 점이 같으며 이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活字本에서 별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다.

花口題에 나타난 기록 중《直指》에서는 卷末에 〈直[ ]下〉라 하여 '指'字가 탈락되어 활자본임을 알게 하는 식별요소가 되지만《集解》에서는 下卷의 第1張 앞면에서 花口題는 물론 권차, 장차표시까지 모두 탈락하였다. 특히 版心이 완전하게 비어 있는 경우가《集解》에서 두 곳을 찾을 수 있다.

한편 권차 표시에 있어서는《直指》에는 모두 있으나 《集解》에서는 上卷 第10張앞, 第37張과 下卷의 第1張앞, 第33張 앞면에서 탈락되어 있으며 장차표시는《集解》의 上卷 第38張 앞면에서 '三十[ ]八'로 다른 張과 비교하여 볼 때 字間이 한 字 비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저본에서 활자를 식자할 때의 잘못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版式을 바탕으로《直指》은 조판틀의 사용에 있어서 두 판을 교체로 반복하여 사용하였지만《集解》에서는 그와 같은 특징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花口題와 권차표시의 간격이 처음부터 몇장까지는 고르게 나타나다가 10여장 이후부터는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반복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오르내림은《直指》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두 책의 조판기술이 유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2 活字 및 小字의 사용

이미 앞에서《直指》에는 본문 중에 小字의 사용이 120餘回나 되고 註에서도 제24장 뒷면 둘째자 한 차례 정도인 것에 비하여《集解》에는 小字의 註가 많은 까닭에 작은 活字가 쓰여진 用例는 대체로 註에서 나타나며 본문 중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直指》와《集解》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진 小字를 본문과 註에 관계없이 찾아 比較하면 '師, 來, 如, 者, 有, 喜, 善, 禪, 余, 日, 般, 靈'등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活字 중에서《直指》와《集解》에 쓰여진 활자가 같은 종류일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으니 바로 '禪'字와 '靈'字의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활자의 비교에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특징을 포함하여 본문에 쓰여진 小字도 그 근거가 된다.

특히 '禪'字의 경우《直指》에 쓰여진 것 중에서 우측 아랫부분에 활자의 너덜이 내지는 모양상의 특이한 선이 보이는 바《集解》에서도 완전하게 일치하는 글자가 보인다. 또 '靈'字에 있어서는《直指》의 제22장 앞면에 많은 용례가 보이는 바로 본문의 中字 중에서 같은 面에 '靈'字의 사용이 9회나 반복되면서 中字가 3회, 小字가 6회 사용되어 鑄造數가 적었던 활자는 小字로써 대치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集解》의 下卷 제 30장 앞면에 '靈'이 쓰여진 4회 중에서 3회는 中字로 1회는 小字로 사용되었고 그 쓰여진 小字는《直指》에 사용된 6개중 하나와 크기와 字樣에서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 밖에 小字로서《直指》에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集解》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에는,

夢(上 제18장 앞+4+9), 授(上 제36장 뒤-3-1), 成(下 제3장 앞+2-4),

謂(下 제10장 뒤+3-3), 等(下 제32장 뒤+2-2), 若(下 제32장 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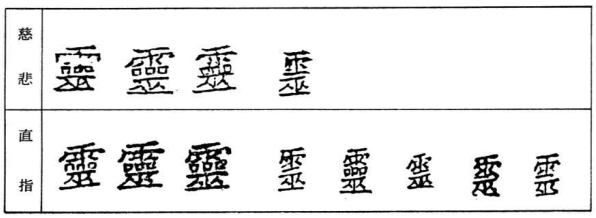
第(下 제32장 뒤-2-9), 囚(下 제33장 앞-3-10), 忍(下 제39장 뒤-5+5),

卽(下 제44장 뒤-2-4), 果(上 제24장 앞+1-8), 因(下 제19장 뒤+6+2),

歲(下 제23장 앞-3-7)

※ 예시 : 제23장 앞-3+7은 제 23장 뒤에서 3번째 줄 위에서 7번째자를 표시함.

등이 있으며 이 중 앞에는 木活字로 推定되는 글자도 있는 것 같다.



'靈'자의 大小字 사용 비교도

이제까지는 두 책의 같은 특징을 모아 보았으나 차이점도 보여진다.

첫째, 같은 단어나 內容이 반복되어서 같은 活字를 重複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重複을 피하고 '|'의 表識으로 省略한 뒤 처음 사용할 때 '此畵以○字看之'라 註記를 달아두고 다음부터는 '|'으로 대신하였다(頻度 : 25回).

여기서 짐작되는 사실로 특정 符號를 사용하여 重複字의 사용을 피함으로써 初期 鑄字術에서의 부족되는 重複字를 대신하는 지혜가 아니었던가 하는 점이다.

둘째, 飜刻된 것만으로 볼 때《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과는 달리 일부 木活字를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특히 下卷의 제18장 앞의 첫째 줄의 아랫부분이나 下卷 제1.35B의 8-9行의 글자들은 다른 면에 나타나는 字體와는 다르게 보이므로 목활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지만 역시 활자본 실물의 출현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셋째, 漢字音에 대한 發音表示는 同音을 기록하는 방법(89回), 反切로써 표시하는 방법(55回), 聲調만 표시하는 방법(23回)이며 그 내용은 註와 본문에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일관된 규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4.3《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活字 書體에 의한 비교

1) 本文

이미 앞에서《直指》와《集解》의 활자가 같고 版式의 비교에 있어서도《集解》가 활자본이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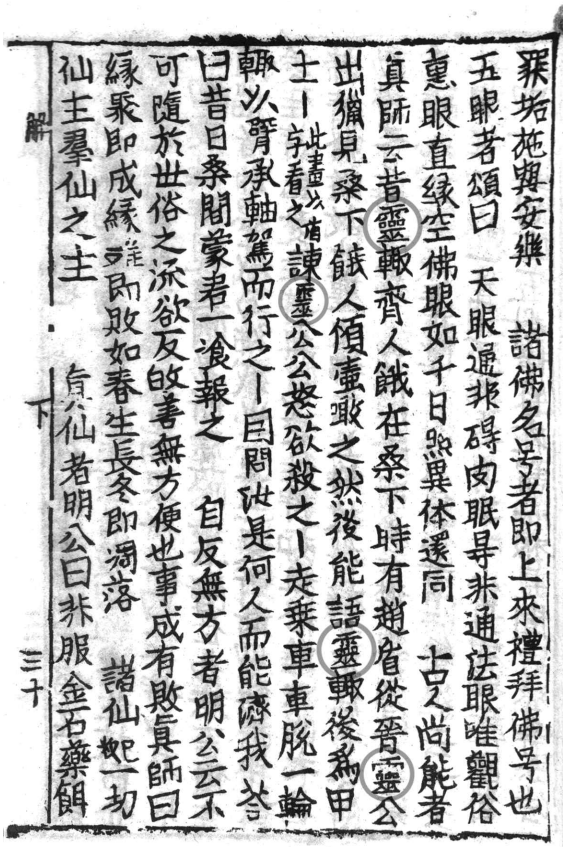
따라서 여기서는 두 활자의 비교를 통하여 관련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集解》는 木板本으로서 그 底本에 쓰여진 활자는 부득이 飜刻本에나타난 현상으로 국한시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체로《直指》와 같음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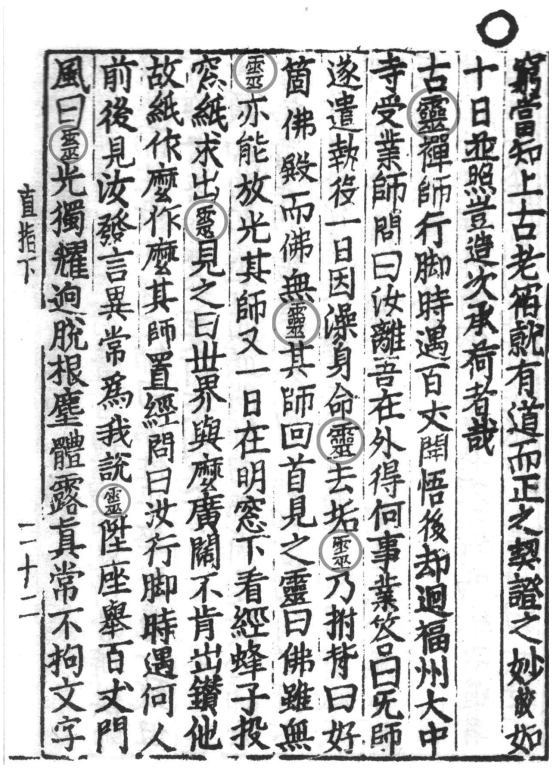
그러나 이를 究明하기 위하여 몇몇 字體를 선정하고 전체에서 같은 글자를 가려 뽑은 결과 중 그 일부만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아서 비록 飜刻은 되었지만 본래의 字樣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圖版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글자 중《直指》에서 볼 수 있는 '煩惱'字가 세 가지 型으로 나타난다든가 '是'자와 '所'자가 두가지 型으로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集解》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煩惱'字에서 '煩'字의 '火'部의 오른쪽 마지막 삐침획이 굽어진 것이《集解》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활자가 서로 같음을 잘 반영하여



《慈悲》下卷의 30面 앞 '靈' 字



《直指》의 22面 앞 '靈' 字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缺字

① 下卷 제37장 앞면의 6行 첫 字와 둘째 字 사이에 '初心停心'을 설명하면서 문맥상으로 볼 때 '四多'의 '多'가 빠져 있다.

② 下卷 제2장 뒷면에서 4行의 '三千大千界'는 여러 版本으로 비교할 때, 또 同面의 7行에도 '三千大千世界'로 되어 있는 까닭에 '世'字가 탈락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③ 下卷 제7장 뒷면의 8行 '毗沙國王維陁始王'에서 다른 版本과 비교할 때 王과 維사이에 '興'자가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다.

④ 下卷 제 14장 앞면의 2行 '豪者强也 奢○逸也'에서 '者'가 문맥상으로 볼 때 탈락되어 있다.

3) 字間

上卷 제38장 앞면의 版 중 張次表示 및 上卷 제27장-1-7에서 같은 面-1-1의 사이에서 '…論○-○相○成己'로 글자사이에 특별한 이유없이 한칸씩 비워져 있으므로 이는 植字時에 잘못 排字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필요없는 字의 삽입

下卷 제5장의 앞면의 10行에서 첫문장 '…具五逆者 足滿五劫者…'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여러 판본과 비교할 때'具'字는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5) 內容과 관계없는 字의 삽입

下卷 제32장의 뒷면의 5行 '…相符豈可胡越'에서 '豈'자는 다른 판본과 비교할 때 관련이 없거나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판본중에는 '乃'字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6) 飜刻의 설명

下卷 제34장의 앞면의 2行末에서 '詳校本頗倒次 今改書開板'이라는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飜刻本임을 나타내고 있다.

…此廻向頌 生枝曰 詳校本 三乘六道等 次第先後倒錯 恐書之者錯也舊本中 偈頌次第 當然學者詳焉 恒會無相者(會卽證也 詳校本頌倒次 今改書開板)…

7) 글자를 옆으로 排置한 것

이와 같은 예로는《直指》에 '日'字가 세 군데에서 거꾸로 排字되어 있다고 선행의 연구에서 밝혀두었다. 마찬가지로《集解》에서도 '十'자가 잘못 排字되어 균형을 잃은 경우가 있으니 上卷 제43장 뒷면의 마지막줄 9번째자와 下卷 제8장 뒷면의 4째줄과 7째줄, 下卷 제23장 뒷면의 첫째줄 등에서 그 같은 예가 나타난다.

8) 活字의 完缺

활자가 이지러져 있다는 것은 木活字가 아닌 金屬活字를 오랫동안 사용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으로《直指》에서 그와 같은 흔적이 있다는 연구는 없었으나《集解》에서는 下卷 제36장 뒷면의 첫째줄 '十'字가 상하의 획과 좌우의 획이 엇갈려 있음을 보여준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은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興德寺字로 찍은《集解》飜刻本의 서지적 검토와 더불어《直指》와 비교하여 鑄字本으로서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集解》에 대해서는 사상적, 역사적 검토 내용을 소개하고 여기서는《集解》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註釋에 대한 인용을 상세하게 밝혔다.《慈悲》는 活字本《直指》의 上卷이 발견되지 않은 현재로서 그 활자의 전모를 짐작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며 撰者인 祖丘와 고려말 천태종의 활동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慈悲》의 관련 판본으로는《慈悲道場懺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이 있고 이를 대상으로 集解는 어려운 단어와 발음, 뜻을 풀이한 것이다.

2) 集解의 성립이전에 중국에서는 辨眞, 廣鈞, 覺明 등의 주석서가 있고 고려에서는 彌授와 東林禪師 등의 주석서가 유통되고 있었다.

3) 集解의 편찬자는 空菴和尙 祖丘이며 조선 태조때 國師를 지냈으며 佛思寺와 瑩原寺의 주지를 겸하고 있었다.

4) 版本은 고려 금속활자본인《直指》를 찍었던 興德寺字로 간행되었던 底本을 다시 목판으로 번각한 것이다.

5)《直指》에서 나타나는 금속활자본으로서의 특징이 같이 나타나며 小字의 병행사용이나 같은 글자의 異體字 사용 등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6) 고려시대 지방의 사찰에서 이루어진《直指》와《慈悲》의 出版은 기록과 더불어 당시 중앙에서의 우수한 금속활자 인쇄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直指》와《慈悲道場懺法》으로 대표되는 興德寺字는 새로 발견된 證道歌字와 더불어 세계 금속활자 인쇄사는 물론 文明史에 큰 발자취로 남는 기록유산인 만큼 선학들이 남긴 업적을 제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 권 희

• 1987년～현재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한국의 금속활자 및 목판인쇄, 고려 대장경 등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고려 금속활자 조사연구》공저, 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증도가 연구》공저, 청주고인쇄박물관, 2011 외 다수